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지난 백 년 동안 선교 역사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미사에 후원회원뿐 아니라
교우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모두 오셔서 기쁨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100주년 감사 미사

초대합니다

일시 2018년 11월 24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례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복음의 기쁨 나누기

골롬반선교

2018년 가을호 vol.108



창립 100주년 특집
공동 창립자 존 블로워
골롬반 세계청년대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복음의 기쁨 나누기

골롬반 선교

2018년 가을호 vol.108

표지 설명 |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지부 정원에 마련한 성 골롬반 동상 성경을 가슴에 안고, 한 손은 목자와 순례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었다. 중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선교의 길을 나선 그의 얼굴에서 강단과 담대함이 느껴진다. 먼 곳을 내다 보는 시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 길을 주저없이 걸었음을 표현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언제나 성령과 함께했던 성인의 발등 위에 앉아 길을 인도하는 듯 날갯짓한다.

마음을 여는 글

감사와 기억 그리고 희망

김종근 도밍고 신부 | 한국지부장



가을 인사를 보냅니다. 모두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100주년의 주제가기도 한 “복음의 기쁜 나눔”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골롬반회가 활동하는 각 나라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잔치를 통하여 성 골롬반의 삶과 선교 영성, 창립자와 선배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마음에 되새기고, 선교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모든 이와 기쁨을 나누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골롬반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처음 선교를 시작하였던 광주대교구에서 봉헌한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100주년 기념 숲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를 제주에서 하였고, 골롬반 성인의 동상을 서울 돈암동 본부 정원에 모셨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에는 골롬반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골롬반 세계청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 외에도 우리의 일상 안에서 다양하게 100주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 창립 정신이 담긴 “창립 100주년 기도문”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자기 나라의 말로 기도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들의 일치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바치는 이 기도는 다양한 문화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 영적으로 소외된 이와 함께해 왔던 선교 역사가 후대에 이어지도록,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아는 지혜를 청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회의 주보성인이신 성 골롬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묵상합니다. 동시에 우리 회의 공동 창립자인 에드워드 갈빈 주교와 존 블로워 신부의 선교 영성과 헌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를 사랑하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금 100주년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 마음을 여는 글 **03** 감사와 기억 그리고 희망 김종근 도밍고 신부
- 선교 100주년 **04** 공동 창립자 존 블로워 민수왕 패트릭 신부
- 06** 골롬반 세계청년대회 편집실
- 한국을 떠나며 **10** 전 고르넬리오 신부, 옥 베르나르도 신부의 선교 여정 편집실
- 피지 이야기 **14** 복음의 기쁜 나눔 정익균 가롤로 신부
- 선교사의 창 **16** 1960년대 한국의 풍경 오록 케빈 신부
- 평신도선교사 **18** 사막 위의 식당 오이신 케니 선교사
- 지원사제 **20** 페루로 떠나며 박상호 라파엘(대전교구) 신부, 양용석 프란치스코(서울대교구) 신부
-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 **22** 서울대교구 신정동성당 진가람 요셉 신학생
- 다시 읽는 선교잡지 **24** 공소에 가면 기 토마스 신부, 갈 굴리엘모 신부
- 후원회 **26**
- 골롬반소식 **28**



편집실 Tel. 02-927-2705 E-mail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E-mail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saint

발행일 2018년 9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김종근(도밍고) 신부 편집위원 오기백(다니엘) 신부, 최두레(유스티나), 김소영(세실리아)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동진인쇄

공동 창립자 존 블로윅

민수왕 패트릭 신부



존 블로윅

중국 선교를 함께할 선교사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은 에드워드 갈빈 신부(후에 주교)는 1916년 아일랜드에 돌아와서 그 일을 함께할 지도자를 찾으려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할 일이 많을 것이며 중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녀야 할 것이고 주교들을 만나야 하고 돈을 모금하여야 하며, 신학교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아마 그 학교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 사람은 마치 장군처럼 선교사 군단을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갈빈이 그토록 찾았던 그 사람, 존 블로윅 신부는 정말 평생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블로윅은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에 아일랜드 메이누스의 성페트릭신학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스물다섯 살의 새 사제이면서 대학원생이었지만 교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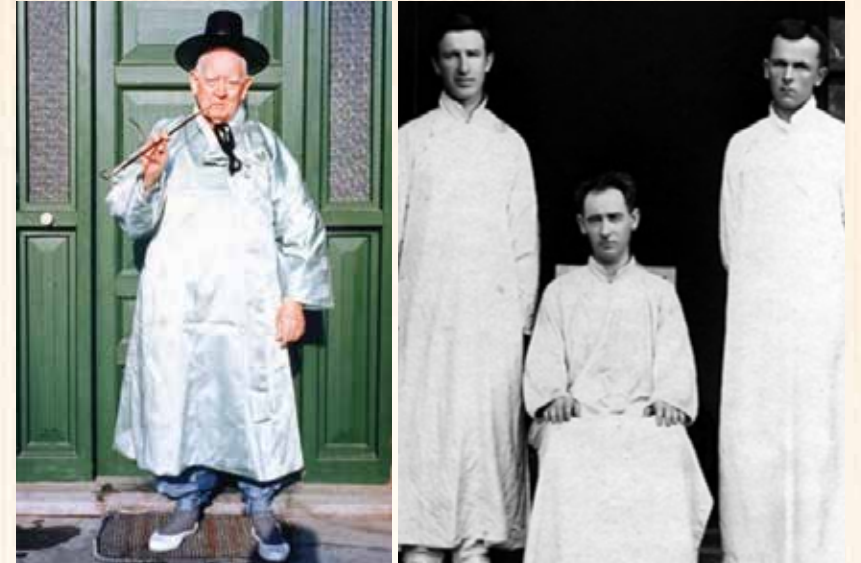
될 만큼 유능했고 훌륭한 학자로 인정받았다. 촉망받는 교수로 사제 생활을 시작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스스로 늘 이렇게 물었다. “왜 나는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는가? 가서 만민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사실 그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벌써부터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꿈은 1916년 9월 4일, 갈빈 신부를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1916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아일랜드의 혁명이 실패했고, 혁명 지도자들은 곧바로 처형당했다.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때 새로운 영적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만큼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다. 하지만 블로윅은 교수직을 사임하고 선교회 설립에 뛰어든다. 그리고 갈빈이 온지 불과 7주 만에 갈빈과 블로윅은 드디어 주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선교회 설립을 허락받았다. 돈도 건물도 없었으며, 갈빈 외에는 선교 경험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선교 단체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라 전체가 해방과 정체성 회복, 변화를 갈망하는 뜨거운 에너지로 들끓었는데, 이 움직임은 신앙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애국심 또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힘차게 뛰는 조국의 맥박을 들을 줄 알고 시대를 잘 읽었던 블로윅은 외방선교의 중요성과 그 부르심에 대한 책을 쓴다. 4만 부가 팔렸다. 책에

존 블로윅 John Blowick 신부

- 1888. 10. 26 아일랜드 출생
- 1913 사제서품
- 1914 성페트릭대학교 교의신학 교수
- 1916 에드워드 갈빈과 선교회 설립의 뜻을 모음. 아일랜드 주교회의에서 선교회 설립 인가. 골롬반 신학교 시작
- 1918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교황청 인가
- 1919~1924 1대 총장
- 1922 메리 패트릭 수녀와 함께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창립
- 1924~1947 부총장 겸 아일랜드 지부장
- 1916~1964 골롬반신학대학교 교수
- 1972. 6. 19 선종, 달간파크에 안장



한국을 방문했던 블로윅 신부(1963년)

1920년 첫 선교사 그룹과 중국에 갔을 때 (왼쪽부터) 갈빈 주교, 블로윅 신부, 임오웬 신부

서 그는 국민에게 새로운 국가적 십자군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후손들이 우리에게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중국에 하느님의 구원을 알려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신심 깊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길을 터 주었다. 또한, 다른 선교 단체, 특히 아프리카 선교회, 마리아의 의료선교회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각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교 안에서도 블로윅 신부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교수들과 학생이 한 공간에서 나란히 식사하고 같이 운동하였다. 학생 휴게실 문에는 유리창을 없애 학생을 감시하지 않고,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만나도록 하는 등 세세하게 신경 썼다. 시험 때에도 감독을 두지 않았다. 서로 신뢰하는 구조를 만들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양성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당시 다른 신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었다.

갈빈과 블로윅은 마치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처럼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었다. 그들은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으며, 오해와 의견 충돌이 많았다. 하지만, 같은 비전을 가졌고 서로 존경하였으며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갈빈 주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돈을 요구하면, 블로윅은 돈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했다. 갈빈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블로윅은 아일랜드에서 선교사 양성과 선교회 관리를 맡으며 함께 골롬반회를 이끌어 갔다. 그는 단 한 번 (1920년) 선교지인 중국에 가 봤다. 당시 편지에는 “더워 죽겠다. 섭씨 40도가 넘는데, 갈빈은 걱정도 안 하는 것 같다. 맨날 하얀 면바지만 입고 사는 그의 모습이 형편없다.”라고 적었다. 선교지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선교회를 위하여 고국을 떠나지 못했던 블로윅 신부는 75세 때인 1963년에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선교지를 방문하였다. ✠



글 | 민수왕 Patrick Murphy 신부

1967년 아일랜드에서 사제서품. 1968년 한국으로 파견되어 광주대교구, 제주교구, 인천교구에서 사목하였다. 골롬반회 역사를 정리한 책, 한국의 문화를 소개한 ‘두 개의 세상’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골롬반 세계청년대회

편집실

창립 100주년 기념 골롬반 세계청년대회가 7월 3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골롬반회가 일하는 미국, 미얀마, 영국, 중국, 페루, 피지, 한국에서 참가한 청년 25명은 서울, 상주, 광주, 목포, 제주 등 곳곳을 다니며 한국의 여러 모습을 만났습니다. 정의와 평화, 가난한 이들과 연대, 창조질서 보전, 다른 종교와의 대화 등 골롬반회의 선교 사명을 가까이에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고, 한국의 역사와 신앙 전통, 가톨릭 교회의 역동을 직접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졌지만,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기쁨을 체험한 젊은이들은 서로를 제2의 가족이라고 부르며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젊은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절두산 성지 성인 유해실에서

한국 교회,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 에밀리 | 영국

18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서울의 절두산 성지에 다녀왔어요. 한국의 초기 가톨릭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신앙을 지켜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고, 감동받았어요. 자유란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얻을 수 있겠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러한 참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

서로 다른 문화, 하느님 안에 일치하는 기쁨





다른 종교와의 대화

“ 성수아 가브리엘라 | 한국

저는 선교본당의 존재와 그 의미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일반 가정집 같은 곳에 방석을 깔고 그곳 신자들과 웅기총기 모여 앉아 미사를 드렸는데 함께 온 외국 친구들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알고 상부상조를 이루어 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골롬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사명



“ 빅토리아 |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그들을 치료해 주는 요셉의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온종일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도처에 계셨어요. 그곳을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 친절하신 자원 봉사자에게도요.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잊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회문제가 커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더 커질 것입니다.

“ 판아웅 |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하는 미얀마에 평화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고대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부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룬 과정 등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가정과 만남



가난한 이들과 연대



▲성이시돌목장 체험



▲성이시돌목장 임피제 신부의 묘소 참배

▼목포 산정동성당,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에서



전 고르넬리오 신부의 선교 여정

편집실

환자들이 생기면 신부부터 찾았다. 산모나 환자를 멀리 있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일도 주요 일과였다. 한센병 환자, 결핵 환자들도 만나야 했다. 전염병으로 고생하던 신부들을 몇몇 보았지만, 아프고 가난한 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일구며 힘겹게 살았던 강원도 사람들에게 미국가톨릭구제회를 통하여 받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는 일 또한 꼭 필요한 사목이었다. 전 고르넬리오 신부는 성당에 큰 솥을 걸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누며, 보릿고개를 함께 넘었다. 본당에만 있으면 사람들의 삶을 일일이 알 수 없었기에 공소와 신자 가정에 자주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도로 위로해 주었다. “제가 찾아가면 늘 기다려 주고, 뭐라도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미사 예물은 달걀 한 줄이었지만, 어떤 금전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지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다 내어 주었어요. 불쌍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그들의 착한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1972년, 교구장 박 토마스 주교는 전 고르넬리오 신부를 춘천에 있었던 성심여자대학교 학생지도 신부로 발령하였다. 본당사목만 했었기에 처음엔 자신 없었지만, 걱정과 달리 학교생활은 즐거웠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하여 매일미사와 성사, 예비자교리를 하였고, 영어 과목도 가르치며, 학생들의 어려움,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었다. 한창 시국이 혼란할 때, 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사전에 말해주지 않았다고 따지는 이도 있었다. “신부를 믿고 학생들이 말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부를 찾아와 말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지요. 누가 저에게 신부가 학교에서 뭐하느냐고 묻길래 대답했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학생들에게 줘니다’라고요.”

▼ 성심여자대학교 학생지도 시절 학생들과 함께



“
지난여름,
전 고르넬리오, 옥 베르나르도 신부가
한국 선교를 마치고, 고향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두 사제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던 한국에 와서
57년 그리고 55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숨 쉬고, 울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두 선교사제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전 고르넬리오(왼쪽) 신부와 옥 베르나르도 신부. 왼쪽은 두 신부의 20대 시절, 강원도에서 사목할 때(1964년)이고, 오른쪽은 50여 년 세월이 흐른 후, 한국을 떠나기 전 모습이다(2018년).



본당으로 돌아온 전 고르넬리오 신부는 춘천교구 교동에서 사목할 때 설악동성당을 지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저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신자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자기 일에 책임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본당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아일랜드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 신자들을 참 존경했어요.” 그는 말하기보다 듣는 사제였으며,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목자였다고 신자들은 기억한다. 그 때문일까? 그가 있었던 본당은 역동적이고, 신자들 간의 정이 돈독한 공동체였다.

“본당에는 온갖 사목이 다 있어요. 본당엔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였던 저는 본당사목과 잘 맞았습니다.”

전 고르넬리오 신부는 12개 본당에서 사목했는데, 춘천교구 20년, 인천교구 18년, 수원교구 그리고 서울대교구와 광주대교구에서도 일했다. 인천교구를 끝으로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2003년에 나요한 신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의정부교구 호평동성당(당시 서울대교구)에 후임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은퇴를 하였지만, 하느님께서도, 그를 고국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목자를 기다리는 양들에게 계속해서 파견하시는 하느님께 순명하며 살았더니, 16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선교사로서, 사제로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만 57년을 살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긴 세

월 부족한 저를 여러 가지 역경과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 저를 위해 기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없다면 저는 제대로 사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항상 위로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옥 베르나르도 신부의 선교 여정

산 너머 공소에 가는 길, 쌓인 눈에 미끄러져 차가 도랑에 빠져 버렸다. 둘러봐도 산골에 도와줄 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멀리서 완행버스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날 장날이라 아주머니들이 장에 내다 팔 채소를 이고 지고 있었고, 팔려고 가져온 닭까지 버스 안이 꽉 찼지요. ‘신부님, 기다리세요!’ 하더니 사람들이 다 내리고, 차가 빠꾸(후진)해서 저를 꺼내 주었어요. 바쁘다, 빨리 가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때 한국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느꼈고, 아!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옥 베르나르도 신부는 8개 본당에서 사목했다. 16년은 강원도에서 26년 동안은 인천교구에서 일했다. 첫 본당은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간성 성당, 충소리도 자주 들리고 실제로 간첩과 무장공비들이



노인요양병원으로 환자 봉성체 갔을 때

내려오기도 했다. “요즘 평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60년 만에 들리는 평화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옥 베르나르도 신부의 고향은 아일랜드 웨스트미스

로,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여 순교한 라 파트리치오 신부의 고향이다. “라 파트리치오 신부를 통하여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 신부는 한국으로 파견된 지 7년이 되었을 때, 라 신부가 일하고 순교한 묵호성당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라 신부가 잡혀간 것을 재현하는 기록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실제로 옥 신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라 신부와 많이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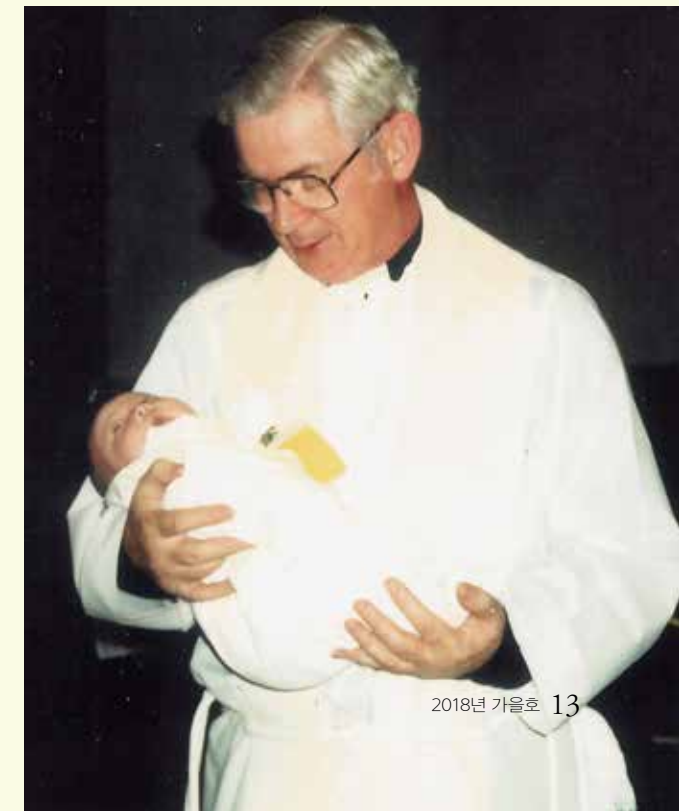
그는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과 연민이 많다. 옛날에는 가난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스피린만 먹고 참다가 죽는 일도 많았다. 어느 날, 교우들이 와서 젊은 남자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 곧 죽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 집을 찾아간 옥 신부는 후레쉬를 켜고 킁킁한 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날, 남자의 부인이 찾아왔다. 옥 신부가 다녀간 후로 남편 몸이 나았다는 것이다. “남자는 내가 자기에게 엑스레이를 찍어 주어서 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져간 후레쉬를 엑스레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한 달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교우들이 뒷산에 묻으려고 땅을 파고 흙을 덮으려 할 때, 앞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여 다른 동네 가서 다시 자리를 파서 흙을 덮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또 다른 곳에 가서야 겨우 묻을 수 있었어요. 서른 살도 안 된 젊은 부부였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옥 베르나르도 신부는 은퇴 후 한국을 떠나기 직전까지 요양원과 노인병원을 찾아 봉성체와 고해성사, 미사를 하며 환자들과 함께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1979년에 인천교구로 파견된 옥 베르나르도 신부는 춘천교구 옥천동성당을 설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개 본당을 설립하였다. 남동성당(현 만수1동성당) 시절, 천막 성당을 지어 2년을 보냈고, 선학동성당에서는 땅과 건물이 없어서 평일에는 신자 집을 돌아

다니며, 주일에는 노인정에서 미사를 드렸다. 본당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고생은커녕 오히려 즐거웠다고 말한다. 본당사목이 잘 맞았기에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낸 본당 신부였다고 말하는 그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명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25살 젊은 사제는 55년을 한국에서, 착한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그저 자신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그의 고백은 바로 사도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신앙고백과 닮아 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인복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의 사랑, 협조,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 참, 행복하고 보람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느님과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몸은 한국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한국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인천교구에서 사목할 때, 유아세례식을 마치고(1990년대 초반)



복음의 기쁜 나눔

정의균 가롤로 신부

피지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신학생 때 사목 실습을 하면서 2년 동안 살았던 낯설지 않은 나라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지냅니다. 제가 보좌 신부로 사목하는 레왕가 성당은 시골에서 올라온 도시 빈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고, 11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본당입니다. 저는 가정방문, 봉성체, 기도 모임과 청년사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지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 직업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본당 청년들에게 그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는 데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후 3시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준비하면서 요즘 바쁘게 지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있지만, 이곳 사람들이 주는 사랑에 힘을 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 본당 청년들과 함께한 피자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지의 많은 본당은 1952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13명의 회원을 피지에 파견한 이후로 많은 선교사제들의 손을 거쳐 성장하였습니다. 피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따뜻하고 정 많은 이로 남아 있습니다. 골롬반회가 설립했거나 활동했던 많은 본당은 수바 대교구 관할로 이전되었고, 지금은 피지 출신 사제들이 사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 개의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북쪽 섬에 위치한 '람바사' 성당과 춘천교구 장성준 안셀모 신부가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활동하는 서쪽 지역의 '바' 성당 그리고 제가 보좌신부로 일하는 수바 시내의 '레왕가' 성당입니다.

수바 대교구와 골롬반회와의 오랜 인연 덕분에 골롬반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백 주년이 되던 날(6월 29일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수도 수바시에 있는 예수성심 중고등학교에서 열린 100주년 축제에 골롬반회 본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신자들까지 약 천여 명이 참석하여 100주년 주제인 "복음의 기쁜 나눔"을 함께하였습니다. 특별히, 미사 안에서 피지 원주민, 인도계



창립 100주년 미사

피지인(이들은 영국 식민지 때 노동자로 강제이주해 온 인도인들의 후손) 그리고 람비인(키리바시 공화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전례를 봉헌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곳이지만, 저마다의 전통을 존중하고 서로 어우러져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 후에는 '양고나 예식'이 있었습니다. 양고나라는 나무의 뿌리를 빵아 물을 섞은 후 천에 걸러서 나온 즙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마시는 예식입니다. 양고나는 피지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마시는 흔한 음료이면서 이번 기념행사처럼 중요한 일, 혼인, 장례, 각종 기념일 등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피지 문화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전통 음료입니다. 제가 처음 양고나를 마셨을 때 혀가 굳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독하고 낯선 맛에 힘들었지만, 저를 환영하며 대접하는 양고나를 차마 사양하지 못했지요. 이제는 저도 이곳 문화를 배워가면서, 사람을 환대하고 삶을 즐길 줄 알며, 순수하고 낙천적인 피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양고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양고나를 마시고 있을 때, 각 본당에서 준비해 온 장기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지 전통춤인 매께(Meke)부터 아이들의 신나는 춤까지 그 자리에 참석한 남녀노소 모든 이가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피지에는 시간 개념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데요, 정확히 지켜지는 시간은 오직 미사 시간뿐, 식사와 다른 장기자랑 순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은 불평불만 없이 그저 기쁘게 즐겼습니다. 이것이 피지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지 사람들과 기쁜 축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골롬반 회원들이 이 나라에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본 것 같았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시간 선배 선교사들이 이룬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남태평양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남미로 파견된 모든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환경 속에서 활동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끊임없이 밝혀 주었습니다. 젊은 골롬반회 선교사제로서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부담감이 어깨에 가득하지만, "복음의 기쁜 나눔"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

정의균 가롤로 신부

2001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회, 2014년 사제서품, 2015년 미얀마 파견, 2017년 8월 피지에 파견되어 현재 수도 수바시의 레왕가 성당에서 사목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의 풍경

오록 케빈 신부

나는 1964년에 한국에 왔다. 우리는 비행기로 한국에 처음 입국한 골룸반 신부들이다. 그전까지 한국에 파견된 사제들은 동물 싣는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다. 정기 여객선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그들은 태평양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밑천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우리는 뱃멀미하는 동물들과 함께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는 상상은 하고 싶지 않았다. 비행이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선교 생활의 어려움을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다. 아일랜드에는 그리 신나는 일들이 없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흥미진진했으며, 끝없는 모험이었다. 우리는 항수병에 걸릴 시간도 여지도 없었다.

지금은 한강 다리 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뉴욕 맨해튼에 비견될 정도이지만, 1964년의 서울 인구는 3백만 명, 한강 다리는 3개, 도심 한복판의 10층 건물은 뉴코리아 호텔뿐이었다. 종로, 을지로, 청계천, 퇴계로 이 네 도로만 포장되었고, 다른 도로들은 비포장 흙길이었다. 소설가 황석영 작가는 영등포의 아스팔트에 대해 말했지만(*작가가 서울 영등포를 고향으로 삼고, 스스로 '아스팔트 보이'라고 말할) 우리는 몰랐다. 1960년대 서울 강남은 논밭이



책으로 가득 찬 오록 신부의 방

있고, 도시는 강북에만 있었다. 내가 사는 회기동도 당시는 논밭이었고, 시조사라는 제철일안식일예수 재림교회가 세운 건물 하나만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은 면목동 쪽에 그 교회가 세운 병원을 기억할 것이다. 외국 신부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었던 병원이다. 시조사 건물을 지나 청량리에서 망우리로 난 길은 청평, 가평, 춘천까지 이어졌다. 한강을 건너 남쪽 길을 따라가면, 오산 다음부터 포플러 나뭇가지들이 늘어진 좁은 흙길이 나오고, 아스팔트가 끝나는 그 길은 전라도로 향했다. 박목월은 <나그네> 시에서 그 길을 잘 묘사했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1960년대 서울 명동

1965년에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지프차로 15시간이 걸렸다. 광주가 그렇게 먼 곳인지 몰랐던 우리는 담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그 길에서 바퀴가 몇 번이나 뚫렸는지 모른다. 앞쪽에선 트럭이 도로를 자갈돌로 다져가며 장마에 대비하고 있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바퀴가 망가졌지만, 친절한 한국 사람들은 바퀴를 교체할 때마다 도와주었다.

덕수궁 일부, 종로 일대, 파고다 공원 건축은 대한제국의 문화부 장관이자 고종의 총세무사(개항장의 관세 담당관들을 관리감독한 관직)였던 아일랜드인 존 맥리브브라운(John McLeavy Brown)의 구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건축양식 대부분은 1500년 문화사에 근거한

* **세계 나무** :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나무로 생명수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주의 기원과 삶의 근원을 상징한다.

것이며, 한국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근대화는 당시의 자취를 파괴하였다. 서울 도심의 흥미로운 곳 대부분이 사라졌다. 1960년대 시청 주변에는 예술가와 작가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찻집과 술집들이 있는 정겹고 구불구불한 골목이 있었다. 찻집에 들어서면 소설가 김동인이거나 시인 서정주 등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차나 커피 한 잔을 대접했다. 특히 나는 금화다방이 기억난다. 낮엔 찻집, 밤엔 술집이었고 우리가 한국어를 연습하기에 좋은 곳이었는데, 유명 인사들은 틀린 영어로 수다를 떨면서 우리의 어설픈 한국어를 듣고 즐거워하였다.

나는 옛 화신백화점과 광화문 사이, 명동과 시청 뒤편의 바뀐 모습이 못마땅하다. 옛 내자호텔과 독립문 사이에 뚫어 놓은 사직터널도 유감이다. 북촌의 장관에 대해서는 하고픈 말이 많지만, 많은 동네가 이미 개발업자들의 불도저에 무너져 내렸다. 아현동과 왕십리, 청량리와 길음동이 변해 버렸다. 이 신도시 계획이 완료되면 옛 서울의 둘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문화적 손실은 이토록 크다. 그러나 서울의 심장은 고동치고 있다.

나 그대와 함께 슬퍼하네,
과거를 비통해하며
잘려나간 세계 나무,*
흩어져간 이파리들 어디 있는지
그 누가 아는가.
하지만 그 나무 살아있으니,
툭날에 바수어졌어도
기억의 뼈에 새겨졌다네. 

오록 케빈 O'Rourke Kevin 신부
성골룸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으로 1964년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외국인 최초로 한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국의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리는 등 40여년 동안 문화교류, 문화 선교의 장을 개척하였다.

사막 위의 식당

오이신 케니 선교사

“오이신 삼촌! 안녕하세요?”

제가 ‘신앙과 희망의 식당’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아주머니들이 항상 이렇게 반겨 줍니다. 이 식당은 콜롬반회가 사목하는 그리스도 성심 성당이 운영하는 빈민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입니다.

우리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광산 마을 알토 호스피시오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이라고 일컫는 이곳 풍경은 저의 고향 아일랜드의 무성한 초록 목초지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알토 호스피시오는 도시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1992년에 5천 명이 살았으나 현재는 10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칠레인뿐 아니라 페루와 볼리비아, 콜롬비아나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왔고, 광산이나 인근 항구의 공장에 취업하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일자리를 찾았지만 많은 이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식당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식당은 야외에 마련했는데 임시로 나무 울타리를 쳐 놓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 먼지가 많

습니다. 요리 시설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만 있을 뿐입니다. 이곳은 또, 지역의 여성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노인, 어린이와 그 엄마에게 음식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공부도 가르칩니다. 이 지역에는 너무나 가난하여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과 범죄가 만연하여 아이들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지만,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환경이 아이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두세 명씩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다 먹은 사람들이 나가고 또 그만큼 들어와 식당을 채우면 6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오고, 집에서부터 따라온 개도 같이 들어오지요. 아이들 울음소리까지 더해지면, 시끌벅적한 소리가 동네 전체까지 퍼집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는 3년이 되어가지만, 이제야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선교는 겸손해지는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스페인어를 겨우 말하는 저는 이곳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커다란 사회 문제가 산적한 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언어와 문화, 사회 규범과 생활방식을 배웠고, 마침내 이 사람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은 제가 잠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자기들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이고서야, 저는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조금이나마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축일을 맞아 북적북적한 '신앙과 희망의 식당'



점심을 준비하는 주방 자매들과 필자(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에 용기를 내어 맞서고,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콜롬반회 평신도 선교는 사회 주변부(변방)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이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생활방식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제 신앙을 새롭게 살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전이면서, 다른 문화를 배우

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식사를 마칠 즈음,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부엌에 있는 자매들도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냄비와 프라이팬, 접시를 설거지합니다.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다가 서서히 떠나가고, 유모차는 텅텅거리며 문밖으로 나갑니다. 개들은 남은 음식 조각을 찾느라 제 가까이 다가가도 물려고 달려들지 않더군요. 마침내 소리가 잦아들고 우리 몇 사람도 내일 먹으려고 준비 하던 것을 남겨 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잠그려고 쇠사슬을 쥐고 자물쇠를 잠글 때, 한 자매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오이신 삼촌! 쓰레기 잊지 말아야지!” 저는 시키는 대로 쓰레기가 담긴 상자를 수거하러 다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방장이 될 날이 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저는 저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

해외 선교사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매월 둘째 일요일 2시~5시

☎02-929-4841 | clmkorea@gmail.com

오이신 케니 Oisin Kenny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아일랜드 출신으로 2015년 남아메리카 칠레에 파견되었다.

▼ 필자가 활동하는 지역인 알토 호스피시오의 풍경



페루로 떠나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인 대전교구 박상호(라파엘) 신부, 서울대교구 양용석(프란치스코) 신부가 7월, 선교지인 남미 페루로 파견되었습니다.

선교사제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두 지원사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골롬반선교'를 통하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양용석 신부

박상호 신부

박상호 라파엘 신부(대전교구)

해외선교 파견 명령을 받은 뒤, 정말 원했던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어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 그동안 살아온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파견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을 성찰해 보니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저 자신이 먼저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안에서 긴 과정을 하기로 하고, 3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제 삶에 최우선이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그분께서 저를 위해 이미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며,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과정을 마친 뒤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꼈고, 하느님께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짐, 언어 등등 인간적인 준비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저보다 먼저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준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 중 골롬반회에서 머물며, 멀리 외국에서 오시어 일생을 한국에서 살아오신 할아버지 신부님들과의 생활은 그 자체로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과 함께했던 신부님들을 보며, 페루에서 살아갈 제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만큼 겸손의 은총을 청해야 함을 깨닫는 소중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나게 될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답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서울대교구)

'왜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

신학생 시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해외선교, 그런데 신부가 되고 3년을 살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첫 휴가를 맞아 동기 신부와 프랑스의 한 수녀원에 갔을 때, 프랑스 사람들 안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인 수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첫 해외선교사였습니다. 본당에서 청년들과 매년 필리핀의 한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수녀님들을 만나면서 선교사의 삶을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선교로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만남이었습니다.

해외선교를 마음먹고, 동료 사제의 추천으로 골롬반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골롬반회에서 진행했던 해외선교사 파견교육을 받으면서는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웠습니다. 개



한국을 떠나기 전 골롬반회에서 봉헌한 파견미사에서 두 지원사제를 위하여 본당 신자, 동료 사제, 골롬반 가족들이 함께 축복 기도를 드렸다.

인적으로 두려움이 더 커지는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중에 어느 선교 사제가 "선교는 'Doing(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파견 준비를 하는 동안 병원에서 했던 임상사목교육(CPE) 프로그램도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지 연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아픈 이들, 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이들을 만나면서 말입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지에 가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듯합니다. 제가 선교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를 주고받almaz도 모릅니다. 하지만 첫 마음이 '있음'이라면,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의탁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께 기도를 청합니다. 저를 기억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기쁘게 다녀오겠습니다. ✠

지원사제 참여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신정동성당(서울대교구)

골롬반회가 활동한 본당 순례기

진가람 요셉 신학생



본당 초창기부터 함께해 왔던 본당의 어르신과 필자(맨 오른쪽)

서울대교구 신정동성당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14년 동안 7명의 골롬반회 사제들이 활동한 본당입니다. 그리고 저의 출신 본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수련 과정)를 마치고, 1년 만에 집과 본당으로 돌아와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본당의 어르신들과 만나 우리 성당에서 사목했던 골롬반회 선교사제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부동산 개발 붐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정동, 목동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신자 수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본당 부지를 구입하고, 1976년 12월 9일 교구에서 신정동성당 설립을 인가함과 동시에 진 제랄드 신부님을 초대 주임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진 제랄드 신부님은 성당이 건립되기 전까지 신정동 제일시장 안, 건물 지하에 임시 성전을 봉헌하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사제관은 거

골롬반 선교사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전해 주신 이동실(빈첸시오), 김인혁(베드로), 이원재(바드리시오) 형제님 그리고 취재에 도움을 주신 김형석 마태오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리가 좀 떨어진 곳에 세를 얻었는데 열악한 환경이었고, 한 번은 신부님이 연탄가스를 마셔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사랑방 드나들듯 사제관에 자주 찾아갔고, 그럴 때 신자들과 장기 두는 걸 좋아했는데 미국 사람인데도 장기를 꽤 잘 두셨습니다. 늘 겸손하게 지냈던 진 신부님은 항상 같은 옷을 입었으며, 당신의 월급으로 가난한 비신자들에게 쌀과 연탄을 사다 준 마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세수를 안 하는 날이 없듯이 성서를 읽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부임한 오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제대 앞에 꽃꽂이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돈을 아끼면서도, 가난한 사람과 인근 신월동 성전 건립을 위해서는 거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고집이 세었지만 합리적이었고, 과묵하였으나 유머 있고, 흐트러지지 않는 성직자의 자세를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모습과 달리 본당 설립 당시인 60~70년대, 신정동과 목동 지역은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옛 신정동성당 관할 지역에 안양천 뚝방길을 따라서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종로와 타지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킨 곳으로, 신부님들은 활동비를 아껴서 뚝방촌이나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곤 하셨는데 특히, 조 바드리시오 신부님은 돈이 생기면 마치 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뚝방길을 다니며 도움의 손길을 자주 건네셨다고 합니다. 조 바드리시오 신부님께 그때의 이야기를

여쭙어보면, 당시에는 다들 도우며 살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오복 안토니오 신부님은 한국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짧은 기간만 머무셨지만, 새 영세자를 많이 배출하고, 겸소하고 겸손했던 사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를 한국에 처음 도입한 원요한 신부님도 우리 성당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차 가를로 신부님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체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고향 아일랜드보다 한국을 더욱 사랑했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목자였다고 합니다. 이어돈 미카엘 신부님은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한 분입니다.

골롬반회 사제들은 엄할 때도 있었지만, 신자들과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나누고 술도 마시며 친밀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셨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 행동하는 사목을 하였고 신자들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골롬반 사제들은 신정동성당 교우들의 열정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지하의 작은 공동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자들 또한 많은 희생과 기도를 해왔습니다. 초

창기는 외국인 사제들과 1990년 이후에는 한국인 사제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지금의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제가 골롬반회에 입회할 때에 당시 본당의 주임이셨던 박동호 신부님은 “골롬반회 신부님이 설립한 신정동성당의 아들이 골롬반회에 입회하니 의미가 깊다. 열심히 생활해서 꼭 좋은 선교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가난했던 이곳에 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던 신부님들처럼 저도 어느 곳엔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파견되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



건진성사를 마치고, 왼쪽부터 이어돈 신부, 김옥균 주교, 차 가를로 신부(1990년 6월)

신정동성당에서 활동한 골롬반회 선교사



진 제랄드
(1976~1981, 미국)



오 안드레아
(1981~1984, 선종)



조 바드리시오
(1984~1987, 서울 골롬반 본부)



신오복 안토니오
(1987~1988, 아일랜드)



차 가를로
(1988~1990, 선종)



원 요한
(1987~1988, 선종)



이어돈 미카엘
(1988~1990, 제주 이시돌목장)

공소에 가면

기 토마스(Thomas Kane, 1914~1984) 신부

『더파이스트』(극동, 1942년 9월·10월
합본호)에 실린 글입니다.

한국의 집에 들어갈 때는 툇마루 앞에 놓인 댓돌에 올라 신발을 벗고, 허리를 굽혀야 한다. 기름 먹인 황토색 종이를 바른 방바닥은 뜨끈뜨끈해서 발을 디딜 때마다 놀라지만, 꽤 기분 좋은 느낌이다! 공소로 봉헌한 이곳은 전교회장의 집인데,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 마을에 있다. 제일 큰방은 미사를 드리는 장소로 쓰이며, 세 개의 작은 방이 더 있다. 모든 방은 연결되어 있는데 방 사이에는 미닫이가 있고, 툇마루 쪽에는 여닫이문이 달려 있다. 이 격자무늬 나무문엔 크림색의 종이를 붙였다. 신자들이 모이자 미닫이를 밀어 두 방을 합쳤는데도 여전히 작았다. 천장은 내가 똑바로 반듯이 일어설 수 있는 딱 그 정도 높다.

벽에 박힌 못에 외투를 걸고, 사람들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보였지만,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지 않아 그냥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다리는 채신 없이 너무 쭉 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떤 남자가 다리를 접고 위엄 있게 앉아 있는 모습이 부러웠다. 여인들은 인사할 때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이 닿을 정도로 몸을 숙이고는 “찬미 예수”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아멘”이라 답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수염을 기르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긴 염소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나무 담뱃대로 담배를 피웠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물었다. “신부님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나의 모든 친척, 조부모까지도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학교는 몇 년 동안 다녔습니까?” 여섯 살부터 학교에 다녔다고 답할 때는 체면이 많이 섰지만, 한자는 전혀 모른다고 털어놓았을 때는 체면이 구겨지고 말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신부가 공소에 왔다는 소식

공소를 방문한 광주교구장 현 헤를드 주교를 맞이하는 기 토마스 신부 (1950년대 후반)



갈 굴리엘모 신부(맨 앞)와 안 토마스 신부(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전남 함평 공소에 있을 때(1950년대 후반)



“
골롬반회가 발행하는 잡지에서
다시 읽으면 좋은 기사를 골라 소개합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본 당시 사회, 문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시대의 징표에 응답했던 골롬반회 선교 역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을 듣고 사람들이 고백성사를 보기 위해 왔다. 나는 의자를 챙겨 빈방에 가서 앉았고, 사람들은 옆방에서 조금 열린 미닫이문을 통해 고백을 했다.

해가 저물자, 방 가운데 놓인 촛불 옆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나와 동행한 교리교사와 집주인인 전교회장과 같이 앉았다. 음식은 집 밖의 부뚜막에서 조리했다. 작고 높이가 낮은 세 개의 밥상 위에는 국과 밥이 담긴 놋그릇, 생선, 김, 달걀, 납작한 놋젓가락과 숟가락이 놓여 있었다. 밥상 가까이에 앉을 때마다 나의 두 다리 때문에 애를 먹었다. 식사 중에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맛있게 먹고 있다는 뜻으로 소리를 많이 내면 미덕으로 여겨진다. 나는 그릇 속 밥이 움푹 과일 만큼 맛있게 먹었다. 신자들이 신부를 대접하려고 정성껏 만들어 주는 한식은 매번 기다릴 정도로 맛이 좋다. 얇은 놋대접으로 물을 마셨는데 밥술 바닥에 늘어붙은 밥을 풀인 숟가락이라는 물이다.

식사 후, 만과를 바쳤다. 기도가 끝나고 남자들의 신학 토론이 이어졌다. 그들은 신학자 탠퀴리가 쓴 문답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아갔다. 그렇다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 꼭 부합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냥 구경꾼일 뿐, 그들은 진지하게 토론하며 서로를 도와 문제를 해결했다. 이불이 들어왔다. 저녁밥을 잔뜩 먹은 데다, 사람들이 방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서툰 한국어로 듣고 말하느라 많이 피곤했다. 그래서 신자들이 촛불을 들고 옆방으로 건너가 문을 닫아 주니 너무나 반가웠다. 이불은 보통 덮는 것이지만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바닥에 깔고 대신 외투를 덮고 누웠다. 배고 자라고 건네준 나무토막(목침)이 딱딱했지만 그래도 나는 8시간 동안 폭 잤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미사를 드린 후, 사제관으로 돌아왔다. 奉

기 토마스(Thomas Kane)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미국 출생. 1938년에 사제서품. 1939년 한국 도착, 목포에서 활동하던 중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억류되었고 1942년 추방당했다. 본국에서 활동하다가 1953년 한국에 돌아와 1963년까지 광주대교구에서 활동했다. 전남 무안의 일로성당을 설립하고 초대 신부로 사목했다.



해설

갈 굴리엘모 William Gallagher 신부

기 토마스 신부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부들이 산골이나 섬에 있는 공소에 가면 하룻밤 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공소 신자들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반겨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데도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골롬반회 안 토마스 신부님, 한국인 장옥석 루치오, 김병준 요한 신부님은 공소를 많이 지었는데 저도 이분들처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공소 안 지으면 신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 통해서 또 다른 신자들 만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공소가 생기고 훗날 그 자리에 본당이 들어섰습니다. 사제로서 선교사로서 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깊고 이야기를 참 잘해서 전교를 잘했습니다. 제가 조금 일하면 신자들은 더 많이 일했어요. 공소에 다닐 때는 교리교사(전교회장)와 언제나 같이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다녔어요. 나, 공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공소 생각하면 이 말씀 생각납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마르 1, 38)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	7일	5일	2일	7일	돈암동 골룸반본부	02-929-2977
인천	11일	16일	13일	11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2일	10일	14일	12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4일	12일	9일	14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7일	25일	22일	27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18일	23일	27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19일	24일	28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0일	25일	29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1일	26일	30일	-	광주 골룸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3일	-	-	13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9일	17일	21일	19일	제주 골룸반 사제관	064-711-2471
	18일	-	20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16일	-	18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9월 목포, 순천, 전주, 광주 후원회 미사는 추석 연휴로 한 주 앞당겨집니다.
- 10월 인천 후원회 미사는 한글날로 한 주 미뤄집니다.
- 11월 후원회원을 위한 무료 피정
 - ① **서울** 생활성가 가수 권성일 형제와 함께하는 음악피정
11월 2일(첫째 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 **신청 ☎02-929-2977**(10월 31일 마감)
 - ② **목포, 순천, 전주, 광주** 강사 미정 / **신청 ☎062-371-5823**
- 12월 목포, 순천, 전주, 광주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중국 선교지 순례(우한 지역)	제주 자연피정(성 이시돌 피정센터)	문의 및 신청
10월 16일(화) ~ 19일(금) 3박 4일	11월 13일(화) ~ 16일(금) 3박 4일	02-929-2977
*후원회원 10명 선착순	*참가 신청 마감: 9월 30일	

창립 100주년 기념
후원회 행사
참가자 모집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로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료만 발급됩니다) ☐ 국제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선교 잡지 (3, 6,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납입금액	입금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	---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폐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1 년 유인 유인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로반외방선교회

故 임피제 신부 명예국민증 헌정

대한민국 정부는故 임피제 신부를 기리기 위해 명예국민증을 헌정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카 레이몬드 맥글린치와 이어돈 신부에게 명예국민증 기념 동판을 전달하면서 “힘든 시기에 제주 도민들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겸손과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맥글린치 신부님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삶을 귀감으로 삼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임피제 신부는 올해 4월 24일 선종하였고, 제주 성 이시돌 목장 햇살 따사로운 곳에 묻혔습니다.



출처: 법무부

신학원 소식

영성의 해(수련 과정)를 보내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떠났던 네 명의 신학생이 1년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골롬반의 영성을 더 깊이 배우는 은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문성윤(레오, 사진) 신학생은 대만에서 2년 동안 선교실습을 하게 되어 8월 초 출국했으며, 박요섭(요셉), 심홍석(암브로시오), 진가람(요셉) 신학생은 서울 가톨릭신학대학에 복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요섭(요셉) 신학생이 영성의 해와 연수를 하기 위하여 8월 초에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디오니시오 신부, 전 요한 신부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 미사

민 디오니시오 신부, 전 요한 신부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 미사가 성모승천대축일에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가족과 골롬반회 선교사, 후원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미사를 드리며, 선교사제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제는 1969년부터 49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활동했던 장 레이문도(호주), 손 제랄드(미국), 류 가롤로(호주), 길 토마스(호주) 신부도 올해 금경축을 맞아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앞줄 오른쪽부터) 길 토마스, 류 가롤로 신부. (둘째 줄 왼쪽부터) 장 레이문도, 손 제랄드, 전 요한 신부. (맨 뒷줄 오른쪽) 민 디오니시오 신부

전 고르넬리오 신부, 옥 베르나르도 신부 송별 미사

전 고르넬리오 신부(사진 왼쪽)와 옥 베르나르도 신부가 6월 19일 고향 아일랜드로 귀국했습니다. 두 사제를 떠나보내며 석별의 정을 나누려는 많은 분이 함께한 가운데 6월 11일, 송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전 고르넬리오 신부는 57년, 옥 베르나르도 신부는 55년을 사목하면서,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헌신했으며, 은퇴 후, 귀국 직전까지도 목자를 기다리는 양들에게 기꺼이 달려가 함께했던 선교사입니다. “신부님! 마음은 한국에 두고 가신다는 끝인사가 귓전을 울립니다. 고향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노엘 신부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6월 21일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2018 3대 종교 공동행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을 창출하고 교육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지개공동회(대표 천노엘 신부)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천노엘 신부는 수상 소감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화장지는 인천공항에 공급될 만큼 우수하다”며 “이들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노엘 신부는 오래전부터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골롬반 성인 동상 제막

창립 100주년을 맞아 6월 1일, 서울 돈암동 한국지부 정원에서 많은 후원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골롬반 성인 동상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예식을 주례한 한국지부장 김종근 신부와 100주년 기념위원장인 오기백 신부는 동상에 표현된 여러 상징의 의미를 풀이하고, 골롬반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 부르심에 매 순간 응답하는 삶을 살자고 초대하였습니다. 또한, 동상을 정원에 마련한 까닭을 설명하면서 “하느님을 알고 싶으면 피조물을 보라고 가르쳤던 골롬반은 자연 안에서 기도하며, 하느님과 깊이 일치했던 성인”이라며, “이곳이 성인께 전구를 청하며,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지원사제 페루 파견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지원사제 박상호(라파엘, 대전교구) 신부와 양용석(프란치스코, 서울대교구) 신부의 해외 파견을 앞두고 지난 6월 7일 대전교구청, 6월 11일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하여 해외선교사목 파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신부의 소속 교구장인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지원사제들을 격려하고 지지와 기도를 약속했습니다. 남미 페루로 발령받은 두 신부는 7월 9일, 6년 동안의 선교 여정에 올랐습니다. 파견미사는 6월 25일, 한국지부 선교센터에서 출신 본당과 부임했던 본당의 교우, 가족, 동료 사제들의 축복 속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지원사제 파견 협약식을 마치고, (왼쪽부터) 지원사제 담당 남승원 신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양용석 신부, 한국지부장 김종근 신부

골롬반 선교사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립 100주년, 한국 진출 85주년과 개국 22주년을 맞아 제작 방송한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위대한 여정>(기획 김선균, 제작 양복순·조미영·편수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골곡진 현대사 안에서 한국인들과 함께하며 소외된 이들 곁에 살았던 골롬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조명하였습니다. <위대한 여정>은 6월 1일, 배우 권해효 씨의 목소리로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기리암 신부의 영어성경반 시작 및 방송 소식

기리암 신부가 골롬반선교센터에서 마련한 영어성경반을 맡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 루카복음 입문편을 강의합니다. 또한, 기리암 신부가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제작하는 TV프로그램 <님따라 한평생>에 초대되어 50년 선교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기리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6월에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www.cpbk.co.kr)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제의 길, 60년 그리고 25년을 축하합니다!

사제서품 60주년



조 바드리시오 신부
Patrick Joseph Muldoon

1934년	아일랜드 출생
1958년	12월 21일 사제서품
1959년~1965년	광주대교구 진도성당 주임
1965년~1969년	광주대교구 무안성당 주임
1970년~1974년	서울대교구 상계동성당 주임(설립)
1975년~1978년	서울대교구 마천동성당 주임
1979년~1983년	수원교구 성남 상대원성당 주임(설립)
1984년~1987년	서울대교구 신정동성당 주임
1988년~1992년	인천교구 상동성당 주임(설립)
1992년~1995년	인천교구 고잔성당 주임
1996년~2007년	서울대학교병원 원목
2008년~2013년	국립의료원 원목
2013년~2014년	강북삼성병원 원목
현재	서울 골롬반 한국지부

사제서품 25주년



김종근
도밍고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최초의 한국인 사제
1993년 11월 23일 사제서품
1994년~2003년 칠레 선교
2003년~2007년 한국지부 성소 지도, 선교센터 관장
2007년~2015년 칠레 선교
2015년~현재 한국지부장, 『골롬반선교』 편집장



임영준
에이먼 신부
Eamon Adams

북아일랜드 출생
1993년 1월 9일 사제서품
1993년 9월 한국 파견
1994년~1998년 불교와의 대화
2001년~2007년 영국 런던대학교 종교학 박사
2007년~현재 종교간 대화와 교육 담당, 영문뉴스레터 제작, 한국지부 참사위원